



Market Index / 18일

코스피지수 ▲ 2070.73 +8.40

코스닥지수 ▲ 645.12 +0.84

유가(WTI, 달러) ▼ 59.34 -3.56

환율(원)

1USD 100¥

실매 1213.36

팔매 1171.64

1082.79

1EUR 1343.45

176.71

1CNY 1291.03

159.89

“일등 지방은행 넘어 일류 제주은행 도약”



서현주 제주은행장은 19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일류 제주은행 도전을 위해 지역밀착 영업력 강화와 체질 개선, 디지털 은행으로서의 변화 노력 등을 약속했다.

인터뷰-서현주 제주은행장

1969년 출범 오늘 창립 50돌 '고객 중심 경영' 실현 약속 "디지털 은행 전환 노력 지속"

“일등 지방은행을 넘어 일류 제주은행으로 도약, 제주의 밝은 미래를 제주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일 창립 50주년을 맞는 제주은행의 제주도민과 함께 할 미래 100년을 향한 포부다.

18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현주 은행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주금융의 절대 강자’로 제주은행은 더 나아가 ‘누구나 거

래하고 싶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현주 은행장은 “일류’ 제주은행 도전을 위해 ▷제주에 기반을 하는 지역밀착 영업력 강화와 확실한 체질 개선 ▷디지털 은행으로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노력 지속 ▷오피니언 리더와 여성인재 양성 확대를 통한 조직 활력도 제고 ▷출거움과 자긍심이 있는 제주인 문화만들기를 표방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제주’라는 브랜드와 70만 도민을 넘어 연간 14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그리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디지털을 잘 활용한다면 제주은행만의 차별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현주 은행장은 “IMF 구제 금융기 등 시련을 극복한 제주은행 창립 50주년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새로운 제주은행을 만들어 간다는 마음이

집으로 모든 제주인들의 하나 된 마음을 모아 더 높이 창도하는 100년 은행, 일등을 넘어 일류가 되는 제주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과 지난 50년 간 동고동락한 제주은행은 1969년 금융을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IMF 파고를 넘어 2002년 신한금융그룹의 가족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선진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제주사랑상품권·제주교통복지카드·제주지니 등 도민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상권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고객을 위한 따뜻한 금융실천도 빼놓을 수 없다. 제주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고객의 동반자로서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은행 역사의 기록들이다.

백금타기자 haru@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북미실무협상 재개와 대북경협주

1·2차 북미협상 관련주 관심 증폭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에 이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큰 이슈였으며 국내 주식시장에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했다.

향후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2018년 그리고 2019년 초에 진행됐던 방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실무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남북 또는 남북미 간의 사전 조율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제3차 북미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같은 기대감은 멈춰서 있는 상태이다. 2차 북미회담이었던 하노이회담이 서로 간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있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제주사랑상품권·제주교통복지카드·제주지니 등 도민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상권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고객을 위한 따뜻한 금융실천도 빼놓을 수 없다. 제주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고객의 동반자로서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은행 역사의 기록들이다.

대북경협주들의 경우 그 흐름에 맞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단기 고점은 북미회담을 전후로 해서 발생했으며 북미회담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등락을 보였다. 2차 ‘하노이’ 북미회담 때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하노이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북미 협상과정에서의 뉴스에 따른 주가 등락을 보여왔었다.

3차 북미회담 기점 등락 예상... 고점 발생 빠를듯 대북경협 지속 단기적 투자보단 협상 흐름 맞춰야

과 초대형 방사포 등 무력을 과시했다. 6월 30일에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회동하면서 북미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증가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단거리 미사일을 10여 차례 발사하면서 기대감이 감소하기도 했다.

과거 경험을 본다면 현시점에서 대북경협주들의 경우에는 단기적 북미실무협상까지 그리고 그 이후 추가적인 남북간 그리고 남북미간 진행에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거 2차례의 상승에서 주요 협상 시점이 단기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만큼 학습효과로 인해서 단기 고점 발생시기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이 북미실무협상 재개 제안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북미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차 상승하고 있다.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2차 북미협상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상승했던 관련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경협 이슈는 완전한 합의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은 만큼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상승 하락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향후 진행될 협상 과정을 지켜 흐름과 비춰 투자 시련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남북관계로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고 북미실무협상을 우선한다는 방향으로 선회, 비핵화협상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건설경기 침체 여전... 관광은 활기

한은, 제주 실물경제 동향

최근 제주경제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관광산업 수요에 힘입어 ‘균형’을 잡고 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며 제주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 상황도 다소 개선됐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p(내국인 8.1, 외국인 32.2) 상승했다.

농축수산업의 농산물 출하액은 하우스 감귤 가격 상승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5.9%p, 수산물 출하량은 양식양어와 멸치를 중심으로 22.8%p 늘었다. 8월 중 고용률(68.6%)과 실업률(1.5%) 역시 전년도 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8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6.6으로 전월 100.2에 견줘 3.6p 하락했다. 7월 중 건축착공 및 허가면적도 주거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6월 건축수주액은 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수출도 부진했다. 백금타기자



평화관광주간 제주홍보관 운영 제주관광협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평화관광주간' 국내여행 박람회에서 제주관광홍보관을 운영, 서귀포칠실리축제, 제주음식박람회 등 가을 제주 축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주관광협회 제공

가공용 감귤 수매가 180원 3년째 동결... 소과는 제외

2019년산 가공용 제주 노지감귤 가격이 kg당 180원으로 동결됐다. 2017년산 이후 3년째 동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감귤출하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매단가 중 가공업체 부담금은 120원이며 제주도는 나머지 60원을 보조한다. 이번 동결은 가공업체의 경영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감귤주스 음료 소비 감소에 따른 감귤 농축액 판매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수매단가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가공용 감귤 규격은 2S 미만의 소과(49mm 미만)를 제외하고 2L을 초과하는 대과(70mm 초과)와 중경점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가공물량이 전년(6만2542t)보다 2만t 더 늘어난 9만609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halla.com

관광업 신용보증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관광사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의 영세사업자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으로 확대됐다.

지원 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 규모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전).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동부공인중개사. ※기념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50㎡ 5억. 해안동 생관림(목장) 맹지28,842㎡ 6억.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수산동 저수지인근 카페음용관광호 620㎡ 3.1억. 판포 바다경관 구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축과수원 8856㎡ 11억원.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고성외고인근2차선전 대지조성 481㎡ 6.5억원.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독지 638㎡ 3.3억. 선출검은오름 북쪽 주택용지 1002㎡ 2.2억. 신촌 2층주거지역 대 157㎡ 1.7억. 우도하교수해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오라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동·서양안,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746-0014, H-P 010-3693-5563.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